



스스로서 네 마음에 봄이 온다면 꽃이 필 수 있지!

영원한 마음의 봄이 되려면

질문 바쁘게 살다 보니 이제는 자식들도 다 커서 등지를 떠나가고, 절에 다닌다고 하면서 이룬 것도 하나 없는데 저승길이 목전이라 막막한 생각만 자꾸 일어납니다. 이 몸을 벗기 전에 내 본래 소식을 터득해서 영원한 마음의 봄이 되어야 할 텐데, 앉아서 좌선이라도 하려 들면 망상만 많아지고 잠만 쏟아집니다.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업장을 소멸하고 자유인이 될 수 있을까요?

답변 생각에 걸리질 마세요. 수면이 오더라도 그놈이 하는 거지 딴 것이 아니니까. 일을 하고 싶어도 그놈이 하는 거고, 서는 것도 그놈이 하는 거고, 앉는 것도 그놈이 하는 거고, 만남도 그놈이 하는 거고... 그런데 왜 걸리니까? 자기가 나침반을 놓고 '이것이 누(累)가 되게 하지 않는 건가? 집안에 언짢은 일은 아닌가? 자식들한테 내가 이렇게 해서 잘못되질 않나?' 요것만 자꾸, 이 운전대만 잘 돌리면 그 차는 올바르게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익을 가져올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저녁마다 모두 조용하게 삼십 분 동안이라도, 단 이십 분 동안이라도 모든 것을 주인공에 한데 모아서 딱 놓고선 한번 등글러 보세요. 잠념도 이 속에 다 들어가 있고, 한번 등글러서 내면에 딱 놓으면 잡념이 없고 다 없어요. 자식이고 조상이고 부처고, 중생이고 벌레고 지수화풍이고 뭐고 다, 지수화풍 속에 다 흠뻑 들어가 등글러졌으니까 잡념 부릴 게 없죠.

그걸 무겁게 놓고 '너밖에 모르는데, 수 없이 진화돼서 온 과정도, 앞으로 갈 것도 너밖에 모르는데 내가 너를 보지 않고 어떡하겠느냐?' 하고선 그냥 사무치게 관(觀)해 보시라고요. 그렇게 수차례 그런 사무침이 없이 백지장 하나를 넘어서겠습니까? 여러분은 백지장을 우습게 생각하지만 백지장 넘기가 어렵지, 다른 거 넘는 건 쉽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길을 갈 때도 무겁게 발을 떼어 놓고, 마음을 무겁게 두면은 항상 목직하게, 발을 떼어 놔도 목직하게 떼어집니다. 말을 해도 목직하게 떼어 놔지고.

옛날에 어느 도승이 계셨는데, 마적 떼들이 '아! 도승이라는 데 내가 볼 때는, 겉테기로 봐서는 도대체 도승 같지 않아. 그래 네가 도

승이라면 어디 내 칼이 안 들어가겠느냐? 네 가슴에는 철판을 대서 안 들어가겠느냐?' 하고선 오는 길을 지키고 있었습시다. 그랬는데 아니, 자기 죽을 줄 모르고 자꾸 앞으로 다가 오거든요. 그래서 딱 다가오니까 '저 죽을 줄 모르고 오는구나.' 하면서, "도인은 무슨 놈의 도인이나!" 하면서 칼을 들고 "네 가슴에 이 칼이 안 들어가겠느냐? 진짜로 도인이라면 내놔 봐라." 그렇게 했습니다. 칼로 찔러 버리겠다고.

"네 가슴을 찔러서 네 가슴속에 뭐가 들었는지 내가 보겠다." 이랬습시다. 그랬더니 깔깔 웃으면서 하는 소리가 '아주 추운 동절에 고목을 잘라 봤던들 거기서 꽃이 나오더냐?' 그러곤 물었습시다. 꽃이 나오더냐고.

"고목만 잘라질 뿐 꽃은 나오지 않는니라." 그랬습시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만 "스스로서 네 마음에 봄이 온다면 꽃이 필 수도 있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칼을 던지고 정말 그 사람의 마음에 봄이 와서 마음에서 향기가 나고, 따르던 모든 사람도 전부 그 스님의 제자가 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내 집에 강도가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렇고 도둑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런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은 "도둑이야!" 하고 "강도야!" 이럴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침착하게 거기 맡겨 놓으면 스스로 몸뚱이의 모든 게 보살로 화하여 오고 감이 없이 그쪽에 가서 그 사람이 되면은 그 사람 마음이 봄이 돼서 그 칼로 사람을 찌르지

못한다는 이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돈을 받으러 갔는데 돈이 있는데 안 준다 이겁니다. "모든 걸 놓고 살아, 착하게, 악담하지 말고, 그 사람이 잘돼야, 그 사람의 마음이 돌아서야 당신 돈 줄 거 아니야? 그러니 항상 착한 마음으로써 다 놓게 되면 스스로 돈을 갖다 주게 돼 있어." 그랬습시다. 그래서 착하게 놓으니까 스스로 그 사람이 돈을 갖다 주더라고요. 정말, 그랬다는 썸으로 무술에서 고수가 되려도 그렇고, 태권도도 마음을 놓지 않고 모든 잡념을 버리지 않고는 못해요. 그러니 한 찰나에 그 사람 마음이 봄이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여러분이 다 가질 수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이다 놓아야 하는지

질문 스님께서 설법하시는 내용을 조건별로 세세하게 나누어도 보고 비교 분석도 해 봤는데 뭐든지, 어떤 어려운 일에 부닥쳐도 마음에 놓으라고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연구를 하고 공리를 해 봐도 그게 어떤 마음이다 놓으라고 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답변 우리가 이 세상에 이 몸을 가지고 탄생했으면 그게 사대가 공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상대, 모든 오온이 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본국의 본점에서 모든 일체 만법이 나오니까 처음에 공부할 때는 본점이다 모든 걸 맡겨 놔야 합니다. 내가 있음으로써 상대가 있고 생활이 있죠? 내가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공했으면서도 화두라 이겁니다. 이게 그대로.

그럼으로써 일심에서 만법이 나오고 만법은 일심으로 든다 그랬습시다. 그런데 어째서 하고 가는 자기가 자기를 못 믿느냐 말입니다. 믿고 물러서지 않고 거기다가 맡겨 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지금 시대의 일상 생활에서 우리는 티끌 하나 남김없이 다 공해서 나뉘면서 옮겨갈 뿐입니다. 염주가 돌아가죠? 앞뒤가 없는 염주가 항상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 지구 자체도 그렇고 우주 자체도 그렇고 인간 살아나가는 것도 그런 겁니다. 항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항상 고정된 게 하나도 없고. 그러니 거기서 나오는 거 거기다 놔야지 어디다 놓습니까. 누가 했기에 믿질 않는 거란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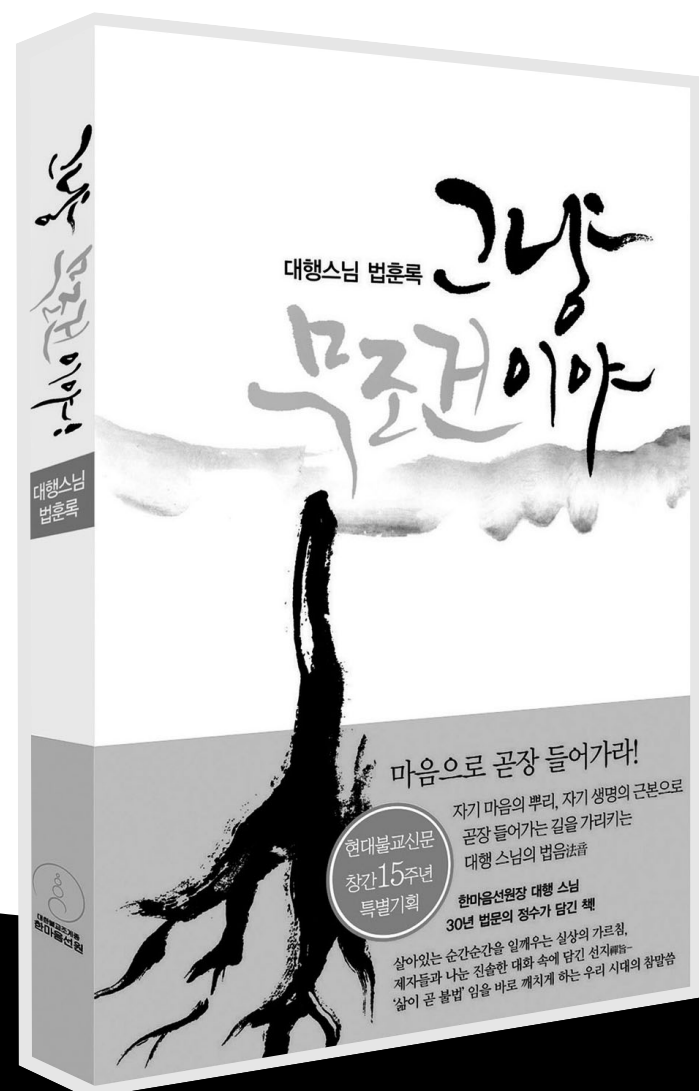
삼위일체라고 했지마는 처음에는 역시 운전수가 있으면 차가 있고 기름이 있는 거죠. 이 세 가지의 이름은 다를지언정 한 몸에 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저 텅 밑에다가 한데 붙여 놓고도 과거심이니 현재심이니 미래심이니 하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더답니까. 그리고 내가 공해서, 내가 이름해서 주인공이라고 했는데 거기다 또 주인공의 그 문제를 가지고, 화두를 가지고 또 자꾸... 이게 문을 오히려 막는 법이라. 예전에는 순진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공부를 했지만 지금 시대에는 너무 아는 게 많아요. 아는 게 많아서 문을 닫아버려, 모두가. 그러니 이런 방식

30면으로 계속



그림 · 최주현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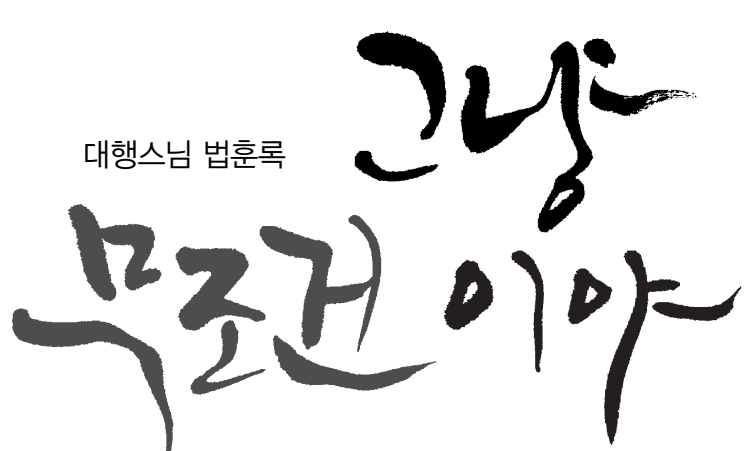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는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